

美 “인도 밀수 유물 반환하겠다”...인도 냉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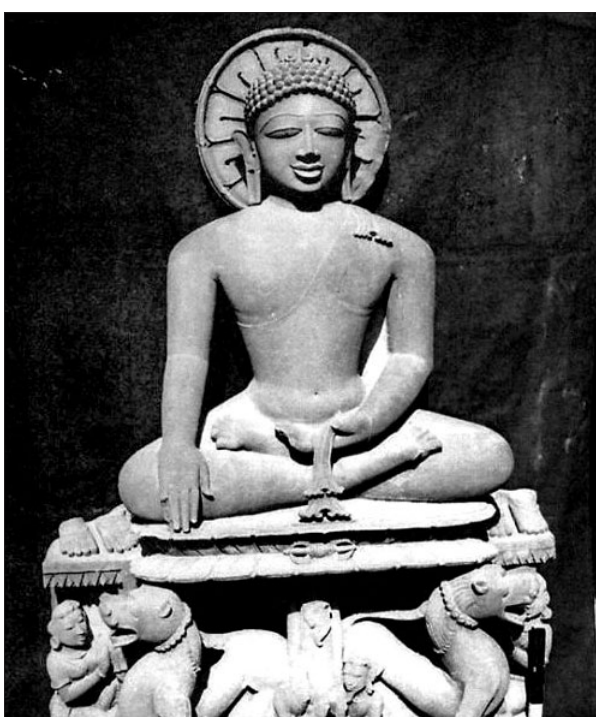
최근 인도에서 훔친 유물의 밀반입을 적발해 압수한 미국의 행정 당국이 인도의 고대 불교 유물들을 과연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지는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민·세관청(ICE/DHS)이 ‘문화재 밀수업자’ 섭하시 카프르(Subhash Kapoor)를 체포하고, 1억 달러(1032억여 원)에 상당하는 고대 유물을 압수했다”고 전하고, “미국 이민·세관청이 이들 유물의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인도 정부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환 절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인도 고고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도난 후 해외 반출된 유물은 환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환수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세관청은 섭하시 카프르의 압수 유물 처리를 놓고 진퇴양단에 빠졌다. 특히 압수된 유물은 감정가만으로도 1억 달러에 달하는 고가라는 점에서, 이민·세관청은 하루속히 인도로 돌려보내길 바라고 있다.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지에 따르면 압수된 유물 대부분 타밀 나두(Tamil Nadu) 등 인도 각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섭하시 카프르는 뉴욕에 골동품 거래소인 ‘Art of Past’를 열고,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다.



인도에서 훔친 유물의 밀반입을 적발해 압수한 미국 행정당국이 인도의 고대 불교 유물을 반환하려 하자 인도정부는 환수비용 부담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도난당한 출라 시대(Chola-era)의 불상.

美, 인도 고대 佛유물 밀수 적발

반환 의사 인도정부에 밝혀

인, 환수비용 유물 소장자에 떠밀어

인고고학계, “반환절차 정당해야”

리아루트(Ariyalur) 사원에서 훔친 출라 시대(Chola-era)의 불상이며,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의 불교 사원에서 훔친 것으로 감정가만 1천5백만 달러(154억여 원)에 달하는 바르후트 약시(Bharhut Yakshi)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00년 전에 조성된 탑의 조각상 일부인 마하코카(Mahakoka)는 인도의 고고학자 집안에서 2004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마하코카를 처음 소장한 고고학자는 1873년 마디아프라데시에서 살았던 알렉산더 커닝햄(Alexander Cunningham) 박사인데, 그는 발굴 후 집안에 불당을 세워 마하코카를 봉안했다. 도난 직후 알렉산더 커닝햄 박사의 후손들은 마하코카를 되찾기 위해 3백만 루피(5500만여 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인도 타임즈〉지는 “환수의 주체는 인도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도

고고학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섭하시 카프르의 유물 대부분 사원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인도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는 관련 학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섭하시 카프르로부터 압수한 고대 불교 유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조속한 환수를 바란다”는 미국의 이민·세관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인도 타임즈〉지는 “인도 정부는 도난당한 사원과 개인이 직접 환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민·세관청과 협조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에서 ‘도난당한 과거(Pundered Past)’라는 협회를 이끌며 ‘도난 유물 환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키리트 만코디(Kirit Mankodi) 박사는 “섭하시 카프르의 도난 유물 대부분 불교 유물이지만, 정부는 인도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문화재의 반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문화재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인도의 유물을 지켜야 한다”고 인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이민·세관청에 따르면 ‘문화재 밀수업자’ 섭하시 카프르로부터 압수한 1억 달러(1,032억여 원)에 상당하는 고대 불교 유물은 관할 차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키리트 만코디 박사의 문화재 환수 협회인 ‘도난당한 과거’에서 제공하는 도난 유물 사진 자료와 대조 과정을 벌이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어릴 때 읽은 불서 지금의 나 만들어”

영국 록그룹 ‘블러’ 보컬 데이먼 알반 인터뷰서 밝혀



록그룹 블러의 보컬 데이먼 알반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할 때 나는 불교 서적으로 마음을 달랬다.”

1990년대 영국 브리티시록계를 주름잡았던 록그룹 블러(Blur)의 보컬 데이먼 알반(Damon Albarn·46)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 눈길을 끈다.

미국 연예매체 뱅 쇼비즈(BANG Showbiz)는 4월 29일(현지시간) 데이먼 알반의 불교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9세 때 가족들과 영국 시골인 에섹스 지방으로 이사를 간 데이먼 알반은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적응을 하지 못했다.

데이먼 알반은 “당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헤르만헤세의 작품들과 다양한 불교 서적을 탐독했다”며 “최근 발매된 앨범 ‘everyday robots’는 내 어린시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지금의 나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을 위해 어린시절의 기억을 찾아 해냈고, 당시의 기억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를 불교서적을 탐독했던 어린시절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英 여성, 부처님 문신 때문에 추방

스리랑카 “석가모니 문신은 문화적으로 민감”



나오미 미첼콜먼은 부처님을 문신한 이유로 반다라나이케 국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한 영국 관광객이 스리랑카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연꽃에 앉아있는 ‘석가모니 문신’ 때문이다.

4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나오미 미첼 콜먼(37·여)은 전날 인도에서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구금됐다.

오른팔에 석가모니 문신을 해 다른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인구 가운데 69% 정도가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를 이용

한 문신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2010년 세네갈 출신 가수인 에이콘도 비슷한 이유로 스리랑카로부터 비자를 거절당했다. 불상 앞에서 수영장 파티 장면이 나오는 섹시 칩(Sexy Chick)이란 뮤직비디오가 논란이 스리랑카 승려와 시민 등 1만 200여명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부처를 모독했다며 콘서트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에이콘은 스리랑카 불교 신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나는 기자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스타님들 만다라 작품활동 소개

오색찬란한 이 예술작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물감’, ‘파스텔’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놀랍게도 재료는 수백만 개의 작은 ‘모래알’들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인도 승려들이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작품’의 생생한 모습을 4월 3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州) 드레퓌 로젤링 사원 출신인 해당 승려들은 ‘신비한 티베트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전역을 순례여행하며 사진처럼 정교한 모래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한 성역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해 우주의 진리를 도형화한 ‘만다라’를 뜻하는 해당 예술작품은 수백만 개의 고운 컬러모

래로 약 30시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조그만 금속 막대로 모래를 조절해 그려내는 해당 과정은 호흡 하나, 자세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숨결 한 번에 작품이 훼손될 수 있어 재제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물론 불교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가 극찬하기도 한 해당 모래 예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로 한 만큼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당 승려단체의 대변인은 “아티스트 자격을 갖춘 승려의 엄격한 지도로 모래 예술 교육이 시작된다”며 “정확한 몸자세와 호흡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인도 승려들이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작품’의 생생한 모습을 4월 3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을 하나하나 모두 배워야하며 안정된 마음과 상호 이해가 수반 되어야 진정한 모래 예술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그는

“열정과 헌신은 물론 예술의 의미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그 다음부터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